

# 부산상공회의소, '에어부산 지역 존치 논의' 촉구 목소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정서 승인 영향 이유로 지역 요구 외면산은, 국토부, 대한항공 변화 촉구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지역 상공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 28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4년에 걸친 합병 승인 기간 부산 거점 항공사의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에 무관심과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해 온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지역 경제계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지역 상공계는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발표할 당시 통합 LCC의 본



에어부산 A321neo 항공기 이미지.

사를 지역에 두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이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확실한 대안으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합병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두 항공사의 결합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 요구를 외면해 왔고, 결

합 승인이 임박한 최근에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반복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의 산물인 만큼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등 자회사 통합과 관련한 부분도 개별 기업의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공적 역할에 대한 무

거운 책임까지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공계는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결합 승인 이후 에어부산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역 사회와 분명하게 약속한 만큼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 지역 상공계, 부산시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산 거점 항공사 존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에어부산은 지역 기업과 부산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성장시킨 부산의 자랑스러운 기업 자산"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으로 부산이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된다면, 이는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부산의 민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강다은 TPO 신임 사무총장 임명



부산시는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신임 사무총장으로 강다은(사진) 시관광마이스 정책전문위원을 1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약한 달간 회원 도시 공모와 10월 24일 집행위원회에서의 전원 합의 의결을 거쳐 회장도시인 시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임기는 1일부터 3년간이다.

강다은 신임 사무총장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부산관광공사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많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관광 마이스 분야의 전문가다. /부산=이도식 기자

### 남해군

#### '남만남해' 숙박비 할인 행사

남해군은 온라인 관광 플랫폼 '남만남해'에서 숙박비 할인 이벤트 '369 숙박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꾸준히 관내 관광업계 활성화와 관광 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시행해 온 '남만남해'가 올해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한다.

369 숙박대전은 남만남해에서 12월 한 달 동안 숙소를 예약하고 숙박을 완료한 회원들 대상으로, 예약 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약은 12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투숙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기장군

#### 도시계획 업무추진평가 '우수'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가 진행한 '2024년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에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까지 구·군별로 추진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정보 등 도시계획 업무 전반으로, 기장군은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경남도

####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경상남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일부터 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간합상위원회(INC-5)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통해 국내·외 탈(脫)플라스틱 분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완도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93억 지급

농가 6807곳에 순차적 지급 예정

완도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3억 원을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4721 농가에 61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086 농가에 32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 사항을 미이행하면 5~20%까지 감액된다.

군은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특히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했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를 했고 신청 이후엔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의 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전남교육청, 글로벌 교육 등 정책방향 논의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오늘 순천, 내일 화순서 개최

전라남도교육청은 12월 3일 순천 만생태문화교육원, 4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5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각급 학교 교(원)장을 비롯해 교육감, 본청 국장 및 과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25년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역점 과제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실현'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교육 실현'으로,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성과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발표된다.

설명회는 2부로 나뉘어 열리는데, 1부 세션에서는 2025년 전남교육청의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남형 한글 해독 지원시스템, 아이랑 한글 이랑' 등 전남형 교육 플랫폼도 소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2부 세션은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교육'을 주제로 김대중 교육감과 교육공동체 간 정책 토크가 8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 설문으로 수집된 질문과 현장 참여자들의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전남교육 청사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전남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 목포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

국토부 주관 '2024 韓 도시대상'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등서 우수

전남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시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도시대상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개 부문(사회·경제·환경·지원체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목포시는 평가에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란 시정목표에 맞게 청년 정책 전담 부서 신설 및 정주 여건 강화, 다수의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의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은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온 점을 인정받은 수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 시가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사회·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산업·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합천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40개 사업서 2409개 일자리 제공

합천군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합천군은 경로당 관리지원사업, 지역환경 개선사업, 내고장 환경지킴이사업 등 40개 사업

에서 2409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 활동사업에 1924명을 선발해 월 30시간 활동 기준 월 29만원을 지급하며 역량 활용사업에는 375명을 선발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월 최대 76만원을 지급한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